



가족위생방역본부·중부사무소, 저소득층에 계란기부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본부(본부장 조선기)와 중부사무소(사무소장 송호진)는 13일 서산동 주민센터(동장 노상복)에 저소득층을 위한 계란 20만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계란은 서산동 관내에 거주하는 홀로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에 전달됐다. 전북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산동 주민센터에 계란을 기부해 오고 있다. 노상복 서산동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꾸준히 저소득 계층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여러분과 새마을부녀회·전광라이온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서산동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축협, 보절면에 기부금 2000만원 기탁

남원시 보절면은 남원축협(협동조합(조합장 강병무)에서 지난 4월 12일 보절면기초생활취약위원회에 기부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 본부장 보절축협 이사, 거점위원회사무장, 보절면발전협의회회장, 이장협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병무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절면 민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종만 보절면장은 "힘든 시기 큰 금액을 기탁해주어 감사하다"며 "항상 면민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한 보절면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청소년들 성장과 진로 지원 적극 노력”

남원시, 제14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남원시는 지난 1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14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이영근 자치행정국장이 청소년참여위원회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시 정책에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남원시 청소년 대표 자치기구로서 9세~24세의 지역청소년 중 청소년관련 기관과 학교장 추천으로 총 15명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언 ▲청



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 청소년관련 다양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남원시청소년수련관이 위탁 운영한다.

이영근 자치행정국장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모습 을 보여 우리 남원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청소년참여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임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진로를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화산동·예수대학교, 주민건강증진 업무 협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동장 유은례)과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는 13일 오전 예수대학교 본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5월부터 홀몸어르신 정서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경로당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 어르신 낙상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게 된다.

김찬기 총장은 “간호복지 특성화 대학인 예수대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은례 중화산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중화산동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봉사단, 행복반찬 나눔 봉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13일 덕진구 사랑의울타리봉사단(회장 이성희) 주관으로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나눔! 정성들여! 행복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부활동이 적은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잔치, 얼갈이김치, 오뎅볶음 등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했다.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행복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항상 곁에서 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살피는 봉사자들 덕분에 밑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



꽃이 활짝 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보살핌으로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장별 계서 증거 세미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달 31일 이만희 총회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구약 신약 장별 계서 증거' 세미나를 시작했다.

증거세미나는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센터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의 중등 과정에 해당한다.

이번 중등 과정 세미나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은 “성경의 핵심주제를 다룬 장(章)을 뽑아 각 교회 담임들이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라고 설명하며 “초등과정(천국비밀 비유풀이)과 고등과정(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세계에 알렸으니 모든 과정을 다 듣고 성경과 대조해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지구촌을 떠나시켰고 그 결과 죽음이 오게 된 것”이라며 “하나님은 잃은 것을 다시 찾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6천 년간 역사해 오셨다”며 성경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중등과정 세미나는 오는 6월 27일까지 25회(매주 월, 목 오전 10시)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멘소래담, 임실군 취약계층 아동에게 안경 지원

멘소래담(아시아퍼시픽(주)(대표 임현정, 이하 멘소래담)이 임실군 취약계층 60여 명의 근시 아동에게 안경을 기탁 지원한다.

이번 안경 지원은 멘소래담의 글로벌 CSR 활동인 'Sending Love and Care Campaign' (사랑과 보살핌 캠페인 보내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맞춤 및 교체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눈 건강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행복두끼 프로젝트 지원 대상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아동이다.

군에서 안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멘소래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 기탁을 통해 아동에게 안

경을 지원한다.

멘소래담은 임실군과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한 행복두끼 프로젝트(사각지대 결식우리아동 도시락 지원 사업) 협약을 통해 맺어진 인연을 계기로 임실군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두고, 특히 아동의 복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안경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동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선물한 멘소래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동이 더욱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30명의 아동들이 1년간 매 1기분의 반찬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